

광주상의 '서울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 각광

개소 10년만에 이용객 13만명 돌파 지역 상공인 수도권 비즈니스 지원 회의·사무공간 이용 50% 이상 증가 이용객 만족도 98.7% 기록 등 호평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서울 용산역 내 운영 중인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 누적 이용객이 13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 상공인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상공회의소가 서울 용산역에 운영 중인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의 누적 이용객이 13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 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1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지난 한해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객은 1만4865명으로 지난 2021년 9373명 대비 58.6% 증가했다.

회의실 이용 건수 또한 전년도 770건 대비 51.8% 증가한 1169건으로 나타나는 등 라운지 이용률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2013년 개소 후 올해로 운영 10년째를 맞이한 비즈니스 라운지는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 3개 광역지자체와 9

개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의 수도권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곳이다.

광주·전남·전북지역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코로

나19 상황에서 수도권 내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역 상공인들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가 이처럼 활성화된 것은 이용객들의 수요에

적합한 회의 시설과 사무공간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용산역사 4층에 위치하고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에는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갖춘 회의실 3곳과 사무·휴게공간 등은 물론, 업무용 PC와 복합기 등이 설치되어 기업인들이 용산역사 내에서 회의·사무에 최적화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모든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상공인 외에도 유관기관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광주상의에서 라운지 이용객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98.7%가 '라운지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라운지 직원 서비스 역시 99.7%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라운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광주지역의 한 기업 대표는 "거래처와의 미팅을 서울에서 할 경우 라운지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면서 "독립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회의 집중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승차 대기 시간 동안 비즈니스 업무를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앞으로도 라운지를 적극 이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회의실 및 라운지 이용을 위한 예약은 홈페이지(www.gj-jnbiz.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2-796-0007)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라운지가 시·공간적 효율성이 높아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에게 판로 개척, 매출 확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봄 맞아 침구류 마련해요' 광주신세계는 5일까지 본관 지하1층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지역 대표 침구 브랜드인 '윤현궁 사계절 상품 특집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계절 인기 침구류를 한데 모아 품목별로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전남중기청, 지역 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 가동

밀집지역 위기징후 모니터링 실태조사후 선제적 대응조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31일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지역중소기업의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를 통해 전남테크노파크에 '지역중소기업 위지원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전남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해왔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특구,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지역으로, 전남에는 총 6052개 사

업장에 대한 120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전남 등 각 지역에 설치된 위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사업장수, 종사자수, 총급여 등 주요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지역경기동향을 살펴보고, 밀집지역의 위기징후를 조사·분석하고 있다.

위지원센터 전담인력은 위기징후가 포착된 밀집지역과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기업현장에 나가 위기징후의 원인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지난달 30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위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 단계를 양호, 주의, 심각 3단계로 결정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밀집지역별 위기징후 단계를 고려한 지역별 중소기업 위기에방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위기징후 단계가 '주의' 또는 '심각'으로 결정된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바우처, 스마트공장, 사업전환 등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위지원센터를 비수도권 12개 시·도로 확대 설치해 보다 넓은 범위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지자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삼성전자 '어닝 쇼크'... 영업이익 69% 감소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연매출 300조 불구 부진

삼성전자가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 스마트폰 판매 둔화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1일 연결 기준으로 매출 70조4646억원, 영업이익 4조3061억원의 '2022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76조5655억원 대비 8%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4분기 13조8668억원보다 69% 줄었다. 이는 시장 예상치 5조원대 영업이익보다 낮은 수치다.

연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6% 줄어든 43조3766억원에 그쳤다. 다만 연 매출액은 302조2314억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하며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에도 글로벌 IT 수요 부진과 반도체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단기적 시장 약세가 이어지다가 하반기에는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다.

DS(반도체)의 경우 메모리는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CPU 출시에 대비해 서버·PC용 DDR5 수요 대응을 위한 준비를 확대하는 한편, LPDDR5x 등 모바일 고용량 제품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메모리 가격 하락 심화, 재고자산 평가손실 관련 영향과 함께 모바일경험(MX)의 스마트폰 판매 둔화로 영업이익 감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뉴스스

광주은행, 지역 소외계층 학생에 장학금 지원

서구장학재단에 100만원 전달

광주은행은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청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 윤풍식 (재)광주시 서구 장학재단 이사장, 허정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전달식을 통해 광주은행은 서구 장학재단에 10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이는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재원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조현기 부행장은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과 상생발전을 진정성있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1981년 설립한 (재)광주은행 장학회를 통해 현재 43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6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현재 71호점까지 선정)'과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현재 8호까지 선정)의 사회공

헌사업을 통해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한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 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하고, 대학생 홍보대사를 선발해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에도 앞장서며 지역 청년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